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제 36차 모의유엔총회 개최

박수세례 아래 숨은 일꾼들 돋보여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수)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 룸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모색’을 의제로 HIMUN 모의유엔총회가 열렸다.

이날 김태형(영어·영어 11) 사무총장은 의제에 대해 “올해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고 세계자연보존총회가 제주에서 열리게 돼 이 사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줬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브라질 △인도 △앙골라 등 총 16개국이 참가했다.

본회의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 확립’과 ‘전통지식과 그에 대한 과생물 보전’의 두 가지 사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와 달리 사회자가 한국어로 UN회의의 규칙이나 용어에 대해 설명해 청중들의 이해를 도와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한 HIMUN 사무국원들과 통역사의 역할을 수행한 학생들을 한 명씩 소개하는



▲ 숨은 일꾼들의 열정 속에 총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참가자들. 심사위원과 발언자, 청중 모두 총회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시간을 가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상환 HIMUN 지도교수는 “행사 관계자들을 모두 소개하느라 시간이 지체됐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를 위해 열

심히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을 조명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2012 세계자

연보전 총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상 왕관 외 1명 △한국의외국어대학교 총장상 김목영 △환경부장관상 이재광 외 2명을 비롯해 총 10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

를 얻었다. 심사를 진행한 관측에 우리 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는 “연사와의 호흡과 기계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아쉬웠지만 매 총회마다 통역의 질이 향상되는 게 느껴진다”고 심사총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도 역시 우리학교 학생들이 각종 역할을 담당해 ‘글로벌 외대’의 열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도 고루 참여해 총회를 빛내주었다. 한양대 서호건군은 “김태형 사무총장의 말처럼 사무국원들의 밑그림과 하이문 구성원들의 색깔이 합쳐진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볼 수 있었다”며 “중간에 회의용 어플을 설명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용어를 책자에 실어서 미리 알고 회의를 봤다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민정·양재상 기자 86cosmos@hufs.ac.kr

*나고야 의정서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수강신청 페이지 서버오류, 개선 필요

“수강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아침부터 정신 없었어요” 지난 달 9일(목) 오전 10시에 있었던 글로벌캠퍼스 2.3학년의 수강신청 서버가 2분 만에 다운됐다. 이에 학생들은 손발이 묶인 채 1시간을 넘게 기다렸다. 아무런 공지 없이 1시간이 지나고 수강신청은 11시 30분에 재개됐다. 그러나 개설된 강의의 4분의 3정도가 이미 수강신청 종료 상태였다.

이에 대해 정보지원처 신왕철 팀장은 “이번 수강신청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DB(data base)의 정지 때문에 서버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오류는 수강신청을 처리하는 와중에 일어나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결국 정보지원처에서는 DB전체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DB를 재가동하려면 그와 맞물려있는 서버와 엔진들까지 모두 함께 재가동을 해야 한다. 재가동해야 하는 서버는 총 4개이며 서버당 걸리는 시간은 각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서버복구는 11시 즈음이 돼서야 완성됐다. 신팀장은 “11시 5분

에 홈페이지에 수강신청 재개 공지사항을 올렸고 15분부터는 학생들에게 문자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지원처 신팀장은 “앞으로 또 일어날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 대해 대비 중이며 DB와 서버를 새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내가 꿈꾸던 직장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어요”

지난 4일(화)부터 5일(수)까지 서울배움터 미네르바 콤플렉스에서 취업박람회(Global Job Fair)가 열렸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각자 관심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와 인사지원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권수정 기자 86sj@hufs.ac.kr

지면안내

2 A+재도전! 재수강제도의 혁명

4 노천극장 철거, 그 행방은?

6 학생을 위협하는 학교 운동장

7 제2의 등록금 탄생, 학교 앞 자취비용



12 인물. 학교에 착한 카페를 차린 학생들

창업동아리 허브 더 카페



빈 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패럴림픽으로 돌아본 우리사회의 언론

▲무더위 속에서도 밤잠을 설쳐가며 응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열기가 런던까지 전해졌는지,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원정 올림픽 사상 최초로 종합 5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런던에서 돌아온 대표 선수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늘 화제의 중심이 됐다.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식이 런던 올림픽이 진행된 7월말부터는 물론이고 올림픽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후에도 신문 1면을 장식하는 등 올림픽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은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지난 달 30일(목) 또 하나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패럴림픽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 패럴림픽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올림픽 개최국에서 진행되는 장애인들의 국제 스포츠 대회다. 경기는 하계 혹은 동계올림픽 종료 후 2주일 내에 10일간 개최되며 이번 패럴림픽의 경우도 이번 달 10일(월)까지 열린다. 그러나 런던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현저하다. 심지어 패럴림픽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패럴림픽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런던올림픽이 진행된 기간 동안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에 관한 소식은 신문에서는 1면 탑, TV방송에서는 맨 첫 번째에 방송된 반면 패럴림픽 관련 소식은 짧게 언급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개막식의 경우도 올림픽은 생방송으로 중계해주는 반면에 패럴림픽의 개막식은 녹화방송을 짧게 중계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설사 패럴림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선수들의 경기 중계 장면을 찾기가 어렵다. 하물며 패럴림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예 그 소식을 접하는 것조차 힘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기업인 만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패럴림픽을 보는 독자 혹은 시청자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언론사는 적자를 내면서까지 구태여 신

문을 통해 기사를 내거나 TV를 통해 방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언론사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독자들 혹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크게 화두가 되는 소식들을 우선시하고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언론사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전에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전달해주는 세상의 창임을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 즉, 언론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밖의 일들을 TV 혹은 신문이라는 창을 통해 모든 계층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앞서 말한 패럴림픽은 언론에 의해 축소되고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의 단적인 예일 뿐이다. 가장 소외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일수록 최대한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 서로가 공감하도록 해야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언론은 세상의 전부를 비추는 것이 아닌, 일부만 비추는 것임을 언론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홍규원 부장

학내 브리핑

종이 식권에서 전자 식권으로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인 홈스톱(HUFS DORM)의 식권 제도가 이번 학기부터 종이 식권에서 전자 식권 카드로 바뀐다.

현재 의무식은 직전학과와 동일한 140여명 전자 식권으로 변경되면서 월마다 한정돼 있던 식권은이월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식사 때마다 기숙사 출입증을 식권과 함께 식당에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전에 시행했던 의무식 소진 이벤트인 '쉐프스페셜'은 이번 학기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학교 빛넬 '사이버 홍보단' 모집

우리학교 전략홍보팀에서는 이번 달 5일(수)부터 14일(금)까지 2012학년도 2학기 사이버 홍보단을 모집하고 있다. 사이버 홍보단은 △교내외 소식 취재 및 기사작성 △학교대표 SNS 운영 △학교홍보 UCC제작 등을 통해 우리학교의 사이버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활동기간은 이번 달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사이버 홍보단 활동 지원인원(서울배움터) 선발뿐만 아니라, 글로벌캠퍼스 홍보진행위원회도 구분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서 양식은 홈페이지의 공지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등록기간 놓치지 마세요

2학기 재학생 추가등록이 이번 달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진행된다.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이 때 9회 이상 등록대상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인 이번 달 6일(목)까지 원스톱 서비스센터에서 등록금액 감면신청 후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해야 한다. 한편, 외부 장학생은 학생복지처 학생상담팀에서 장학증서를 수령 후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납부하면 된다.

외발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외대발추학생추진위원회)

유명무실화된 외발추, 집행부마저 해산되다

외대발추학생추진위원회(이하 외발추)는 십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관으로서 그동안 △강의평가 △교육과정 개선 △재단 개혁 △민주적 총장 선출 △등록금 문제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현재 외발추는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가 없는 유명기관이 됐으며 심지어 지난 6월 외발추장은 인사권 없이 집행부를 해산했다. 이번 신욱하(경영·경영 07) 외발추장은 집행부원들이 공개모집을 통해 뽑힌 이후 집행부원들 중 지원을 뽑은 기준방식과 다르다. 따라서 외발추장이 집행부원들을 뽑은 것이 아니므로 집행부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외발추 내의 구성원들과 상호호의를 한 상태이다. 하지만 신욱하 외발추 위원장은 본인과 집행부원 한명만을 남기

고 나머지 집행부원들을 전부 해산시켰다. 이에 대해 신욱하 외발추 위원장은 "외발추가 하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집행부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산된 외발추 집행부원 중 한 명은 익명을 요구하며 "등록금 문제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문제 등 외발추가 해야 할 일은 많았으며 인사권도 없는 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해산당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외발추장의 '해야 할 사업이 거의 없다'는 의견으로 인해 집행부원들도 사업진행을 중단했고 결국 외발추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 지가 올해 3월 이후부터 반년이 넘었다는 것

이다. 정상혁(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올해 복수전공과 관련해서 외발추에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참여도 없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2학기 사업을 논의해야 할 방학 중에 외발추 사무실 전화는 항상 부재중이었으며 현재 국제학사 2층에 있는 외발추 사무실은 이에 대해 "학생회 사람들이 공간을 쓰고 장학

금을 타는 곳"이라며 "자신은 외발추에서 처음부터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발언했다. 외발추의 기능마비에 대해 정상혁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외발추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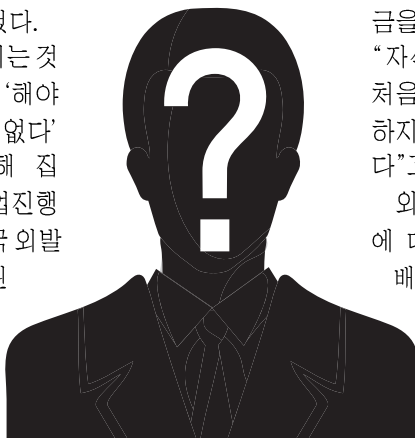
금 문제나 학사제도, 이사회문제 등을 외발추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동안 총학에 부담이 됐던 일이 줄어들다"고 말했다. 또한 "일이 분담되면 총학 담당의 다른 실무들도 더 원활히 처리될 수 있어서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발추의 업무가 마비되고 난 후 운영자금과 집행부원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었던 650만원과 자치회비 200만원은 그 기능을 잃은 상태이다. 이로써 외발추 측에 전달된 총 850여만원 중에 장학금 650만원은 사용계획만 남아있다. 자치회비 200만원 또한 외발추가 아닌 각과의 자치회비로 분배됐다.

이에 이번 달 5일(수) △총·부총학생회장 △각 단장 △학부위원장 △외발추장 △동연장이 모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외발추의 업무처리

(다음호 참조)

홍진아·양재상 기자 86jinh@hufs.ac.kr



우리학교, 세계대학평가 현대어문학 34위

우리학교가 지난 5월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의대 없는 종합대학' 중 아시아 6위, 국내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12 QS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별 순위'의 현대어문학(Modern Languages)분야에서 세계 34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6월 28일(목) 영국의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발표한 평가결과이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학 중 현대어문학 분야에서 50위 안에 포함된 대학은 우리학교를 포함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4곳뿐이다. 'QS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는 개별 학문들을 29개 분야로 묶은 뒤 △학계 평가(Academic Reputation) △졸업생 평판도(Employer Reputation) △논문당 피인용수(Citations per paper)의 세 가지 지표로 평가된다. 이때 평가결과는 개별학문들의 특성을 고려해 세 가지 지표의 가중치를 각 학문분야별로 달리하여 이를 합산한 점수로 순위가 매겨진다. 우리학교가 세계대학 34위로 평가받은 현대어문학 분야는 학계 평가(70%)와 졸업생 평판도(30%)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

Rank	School	AR	ER	OPP	Score
1	Harvard University United States	★★★★★	100	93.3	96
2	University of Oxford United Kingdom	★★★★★	95.6	95.4	95.7
3	University of Cambridge United Kingdom	★★★★★	95.3	93.7	94.8
...
34	Hankuk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South	★★★★	69.9	100	78.7

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학교는 학계 평가 69.5점, 졸업생 평판도 100점을 합산한 78.7점을 받은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평가결과 순위 200위까지의 세계 대학들 중 졸업생 평판도에서 100점을 얻은 대학은 우리학교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효영 서울배움터 평가감사팀장은 "우리학교가 일반적인 대학평가에서와는 다르게 세계대학평가에서, 특히 현대어문학 분야에서 소위 국내 유명 상위권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전 세계 대학평가의 장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점은 아시아권 대학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조선일보·QS 대학 평가보다 훨씬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내가 선택한 과목으로 A+ 재도전하자

지난 달 12일(일) 양 배움터의 재수강 제도 개선안이 최종 확정됐다. 기존제도에서는 동일한 과목 또는 학과나 학부에서 지정을 해준 과목만 재수강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에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학생이 과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폐지 교과목일 때의 △제1전공 △이중/부전공 △자유선택과목은 각각의 영역에서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재수강하면 된다. 교양과목은 폐지된 과목과 편성된 과목에 상관없이 실용외국어는 동일 언어 영역 내에서, 핵심교양과 특별교양은 각각의 동일 영역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개선안은 확정됐지만 전산시스템에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관계로 다음 해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글로벌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김기일 강의시간표 및 수업 담당자는 "학생들에게 점수 상향의 기회를 더욱 많이 부여해 학습의지를 독려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재령(사회·사회과학 10)은 "재수강하려는 과목이 인기가 많아 수강신청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선택과목의 폭이 넓어져서 다행"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사령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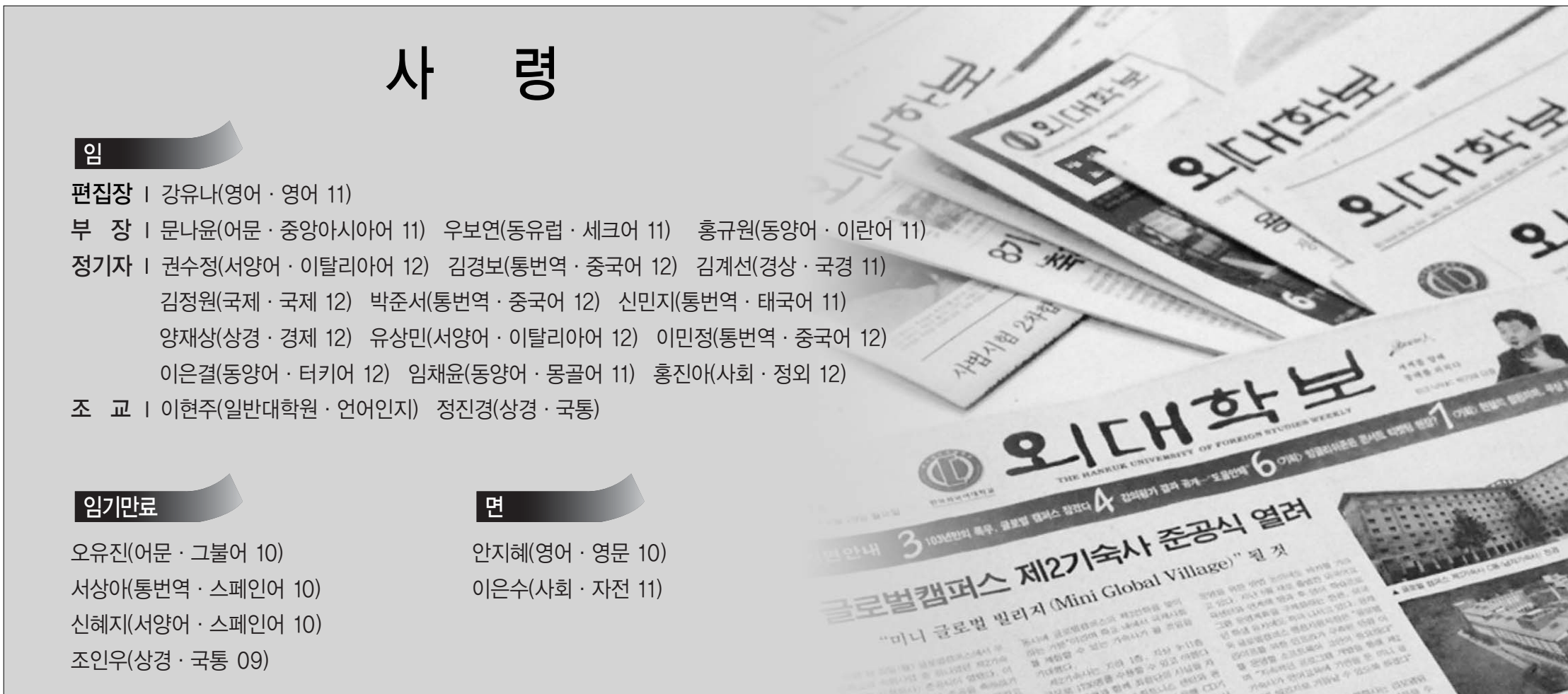
- 편집장 | 강유나(영어·영어 11)
- 부장 | 문나윤(어문·중앙아시아어 11) 우보연(동유럽·세국어 11) 홍규원(동양어·이란어 11)
- 정기자 | 권수정(서양어·이탈리아어 12) 김경보(통번역·중국어 12) 김계선(경상·국경 11)
- 김정원(국제·국제 12) 박준서(통번역·중국어 12) 신민지(통번역·태국어 11)
- 양재상(상경·경제 12) 유상민(서양어·이탈리아어 12) 이민정(통번역·중국어 12)
- 이은결(동양어·터키어 12) 임채운(동양어·몽골어 11) 홍진아(사회·정외 12)
- 조교 | 이현주(일반대학원·언어인지) 정진경(상경·국통)

임기만료

- 오유진(어문·그불어 10)
- 서상아(통번역·스페인어 10)
- 신혜지(서양어·스페인어 10)
- 조인우(상경·국통 09)

면

- 안지혜(영어·영문 10)
- 이은수(사회·자전 11)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우리학교 동문 되다

미네르바 홀에서 코스타리카 대통령 학위 수여식 열려



지난 달 20일(월) 우리학교 미네르바 홀 국제회의실에서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수여식에는 △박철 총장 △김종덕 대학원장 △권순한 총동문회장 등 학교인사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여러 남아메리카 국가의 대사들이 참석했다. 이 날 박철 총장은 스페인어로 “올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헝가리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코스타리카 국가 원수가 우리학교 명예동문이 됐다”며 “오늘은 우리학교의 영광스러운 날이

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환영사가 끝난 후 박철 총장은 직접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어 김종덕 대학원장은 “지금 두 나라는 1962년 첫 교류를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며 “코스타리카의 발전 및 한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해 우리학교 명예정치학 박사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추천사를 전했다. 이에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대통령은

“오늘 한국의대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돼 영광”이라며 “외대는 처음 그 설립이념이 살아 숨쉬고 있어 한국의 현대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인재를 많이 배출해낸 곳으로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양국의 △지리 △언어 △문화는 모두 다르지만 굳건한 원칙아래 우호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며 “한국의 대외 코스타리카내의 UN대학과의 관계 또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준서 기자 86jspark@hufs.ac.kr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대통령은 1959년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태어나 자국의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공공정치학학사를 받았다. 이후 △공공안보부 장관 △법무장관 △국회의원 △부통령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2월에 코스타리카 제4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2석→162석, 넉넉해진 노트북열람실

지난 달 29일(수) 서울메우터 도서관에 노트북전용 열람실이 새롭게 확장 이전됐다. 4층과 5층에 각각 16석씩 존재하던 노트북전용 열람실을 일반열람실로 바꾸는 대신 4층 제2열람실 전체를 162석 규모의 노트북전용 열람실로 개편했다. 이번 확장 이전 공사 덕분에 130명의 학생이 추가로 노트북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원활한 인터넷 연결을 위해 무선 인터넷 중계기를 달았고 각 자리마다 전기콘센트를 비치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노트북 분실에 대비해 CCTV가 설치됐다. 유상희(동양어·공공어 11)양은 “노트북 열람실에 고가품이 많아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는데 CCTV가 설치돼 안심이다”고 말했다. 평소 우리학교 학생들은 노트북전용 열람실의 좌석수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다. 그 결과 올해에는 예산문제도 매년 미뤄지던 공사가 실시될 수 있었다. 확장 이전 공사에 대해

한홍진 서울메우터 학술정보팀 팀장은 “평소 노트북열람실이 부족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일반열람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해 소음문제로 상호간의 불편도 많았다”며 “이번 확장 이전으로 노트북열람실이 한군데로 모이게 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소 도서관에 노트북전용 열람실 자리가 부족해 발걸음을 돌리곤 했던 조규현(동양어·태국어 11)군은 “이번 노트북열람실 확장이전으로 좌석수가 알맞게 배치돼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한성철 서울메우터 도서관장은 “노트북전용 열람실은 도서관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라며 “학생 여러분의 공간인만큼 잘 관리하면서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노트북 분실을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상민 기자 86chickenchicken@hufs.ac.kr

열정으로 물살을 가르다

조정부 '은파회' 1위는 못했지만...“후회없는 경기”

경기 성적은 최고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최고의 자리에 충분히 어울렸다. 지난 7월 21일(토)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전국대학 조정대회(University Rowing Club Race)’가 열렸다. 올해 7번째로 열린 이 대회는 우리학교가 주최했으며 은파회 외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인하대의 조정부가 참가했다. 이날 총 5종목의 경기가 치러졌으며 이 중 재학생팀이 참가한 경기는 △너클포어 1(남자) △너클포어(여자) △에이트 2(YB)였다. 은파회는 △너클포어(남자)는 5팀 중 4등 △너클포어(여자)는 6팀(서울대 제외) 참가 중 2등 △에이트(YB)는 5팀 중 3등의 성적을 거뒀다. 이에 임준규(영어·영통 07) 은파회 주장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다음 해에 열리는 제 8회 전국대학 조정대회를 위해 꾸준히 체력을 기르고 부원과의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은파회를 응원하기 위해 조정장을 찾은 관중에 계서도 응원의 목소리를 들을



▲마지막 경기인 에이트(YB)가 끝난 후 우리학교의 한 조정 선수가 수고했다며 다른 선수의 등을 두드리고 있다. 수 있었다. 너클포어(남자)에 출전한 박성범(서양어·포르투갈어 11) 선수의 아버지 박잠득(서울 노원구, 47세)씨는 “결과가 아쉽지만 선수 모두가 열심히 연습한 걸 알기에 참여한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경보 기자 86kimseoul0923@hufs.ac.kr

각주
1) 너클포어(KNUCKLE FOUR) 콕스(키잡이) 1명과 크루 4명이 한 조를 이룸. 한 사람이 한 개의 노를 잡는 스위프(sweep) 조정
2) 에이트(EIGHT) 콕스(키잡이) 1명과 크루 8명이 한 조를 이룸. 한 사람이 한 개의 노를 잡는 스위프(sweep) 조정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2년 연속 1위 선정!

- 금융(은행·지주) 부문, 잡코리아, 캠퍼스 JOB&JOY 공동조사 -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KB굿잡 대학생만을 위한 할인 혜택 KB 樂 star 체크카드 스마트한 젊음과 언제 어디서든 KB스마트금융
젊음과 호흡하는 공간 KB 樂 star Zone 젊음의 축제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후원



- * KB 국민은행
- * KB 국민카드
- * KB 투자증권
- * KB 생명
- * KB 자산운용
- * KB 부동산신탁
- * KB 인베스트먼트
- * KB 신용정보
- * KB 데이터시스템
- * KB 저축은행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 수해, 그후 1년

지하동아리 보상...엇갈리는 의견

지난 해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 침수로 인해 지하 1층에 있는 동아리들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학교측에서는 동아리연합회와 상의해 지원을 했지만 정작 동아리 부원들은 아직도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학교측과 동아리측의 엇갈린 입장을 들여보고 이와 더불어 침수 방지 방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지난 해 학생회관 침수, 피해액 최대 900만원

지난 해 여름방학 글로벌캠퍼스의 학생회관이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학생회관 뒷산의 토사가 1층으로 쏟아져 내려 학생 1명과 대학원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학생회관의 지하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동아리방이 있다는 점이다. 학생회관에 물이 차면 지하동아리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의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무용실 외에 △자유소프트웨어 동아리 그누벨 △웹 동아리 슬랩업 △중앙 밴드 동아리 아웃사이드 △중앙 극패 동아리 탈반 △중앙 풍물 동아리 한알 △무에 동아리 활터 총 6개의 동아리방이 있다. 김태협(통번역·스페인어 08) 동아리 회장은 "학교측에서 모든 피해에 대해 복구해 준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하게 받은 보상이 없다"고 말했다.

지하동아리 중 전자기기를 주로 다루는 중앙 밴드 동아리 아웃사이드와 자유소프트웨어 동아리 그누벨의 피해가 특히 컸다. △악기 △애플 △믹서 등의 고가 장비들을 비롯한 아웃사이드의 피해액은 약 900만원에 달했다. 박기호(어문·아프리카어 11) 아

웃사이더 동아리 회장은 "우리 동아리가 피해액이 제일 컸다"며 "많은 기기들을 버렸고 일부는 아직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그누벨의 피해액은 △560만원 상당의 컴퓨터 12대 △66만5천원 상당의 모니터 10대 △230만 6천원 상당의 생활용품들을 비롯해 총 8,571,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김태협 활터 동아리 회장은 "수련에 사용하던 모든 기자재를 못쓰게 됐다"며 "수련용 도복 10여벌과 수련용 병장기 48개 등 총 3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학교측 "동아리연합회측과 상의해 지원 완료"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과 달리 학교측은 이미 지원을 해줬다고 밝혔다. 글로벌캠퍼스 학생감동팀 관계자는 "이미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총 400만원 가량의 지원금과 비품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지원금 외에도 시설관리팀을 통해 △책 △결산 지급 △디지털 도어락 설치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리방 외에도 지하 1층에 있는 무용실의 매트와 벽거울 등의 비품 및 시설 복구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글로벌캠퍼스 학생감동팀 관계자는 "동아리연합회와 상의해 비품과 기본 시설 외에도 지원금을 보냈다"며 "따라서 피해 보상이 아예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백민주(통번역·영어 09) 글로벌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은 "지난 해 침수 후 동아리별로 피해상황을 조사해 학생복지처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며 "동아리연합회 간부들이 각 동아리의 피해 상황을 종합해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피해 줄여줬으면"..."사방댐 설치했습니다"

박기호 아웃사이드 동아리 회장은 "아무래도 학교 주위에 산이 많고 캠퍼스가 경사진 형태라 지하해와 같은 규모의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학교측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해은 글로벌캠퍼스 시설관리팀장은 "수해의 주된 원인은 산사태"라며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용인시 차원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던 부분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방댐을 건설했다"고 전했다.



▲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 페이스북 계정이 학생들과 침수 문제에 대해 웹상에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다. 63명의 학생들이 글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다.

사방댐이란 △집중호우로 인한 지표 침식 △표토 유실 △인근 하천의 불어난 물로 인한 2차 피해 등의 수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상류부에 쌓는 댐을 말한다. 또한 정 팀장은 "학생회관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수해 복구가 완료된 후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경보 기자 86kimseoul0923@hufs.ac.kr

우리 공간이 달라졌어요

일본어대, 글로벌경영대 자치공간 새단장

지난 여름방학에 걸쳐 일본어대와 글로벌경영대의 자치공간이 개편됐다. 다른 단과대들이 단과대 학생회실, 개별과방을 보유한 것에 비해 일본어대는 단 하나의 자치공간에서 학생회 회의와 11개 학회들의 활동 등을 전부 해왔다. 글로벌경영대 또한 과방용도로 쓰이는 단과대 학생회실 이외에 다른 세 공간은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돼 단과대 규모에 비해 비좁은 공간을 사용해 왔다.



▲ 서울배움터 인문관 1층에 새로 생긴 일본어대 자치공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어대는 인문관 1층의 빈 세미나실을 임시 확보해 500여명이 넘는 일본어대 학생들에게 자치공간을 제공했다. 글로벌경영대도

자치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왔던 공간들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로써 글로벌경영대 자치공간은 △스터디룸 △경영학부실 △동아

리실 △원스톱서비스센터라는 용도의 공간들로 탈바꿈된다.

이에 대해 이상현(일본·일본어 05) 일본어대장은 "이번에 임시 확보한 자치공간은 휴게실 및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며 "△복사기 △전공서적 △큰 테이블 △커피믹스 등을 구비하여 일본어대 학생들의 안락한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수민(경영·경영 09) 글로벌경영대장 또한 "늦어도 9월말까지는 리모델링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경영대 학생들이 좀더 자부심을 느끼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유상민 기자 86chickenchicken@hufs.ac.kr

노천극장 철거, 긍정적 의견 높아

학교 측이 지난 달 30일(월) 수강신청장바구니 신청기간 중 장바구니에 접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천극장 철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서울배움터 290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노천극장 이용빈도 △이용시 주요 활동 △잔디광장 조성 찬반 △잔디광장 조감도 만족도의 4항목으로 구성됐다. 현재 노천극장 건물은 안전성 문제로 차후 보수해 사용하도록 권고된 상태기에 학교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노천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잔디광장 조성의 찬반을 묻는 설문항목에서 응답한 학생들의 과반수인 83.2%가 찬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의 문항이 편파적이었던 의견도 제기됐다. 설문항목이 △노천극장을 철거하는 방향으로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 △대안으로써 잔

디광장 조성만 제시했다는 점 △설문항목 구성 시 총학생회와의 사전논의가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정상혁(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총학 측에서 요구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언급없이 잔디광장을 만들자고 유도하는 설문 흐름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설문조사가 실시된 다음날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천극장의 추후 계획에 대해 재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 측에서는 이에 동의한 상태다. 현재 총학측은 설문문항을 새로이 구성해 재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학교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016년경 제2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약 3~4년간 현재 노천극장 자리를 잔디광장과 같은 대체 시설로 조성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2012학년도 2학기 신임 교수진

서울배움터



조수경 영어대학 영어학과 정은귀 영어대학 영문학과 성승은 영어대학 영어통번역학과 김희정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박경은 동양어대학 태국어과 김기선 동양어대학 몽골어과 나민구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이종오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과 이미영 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

글로벌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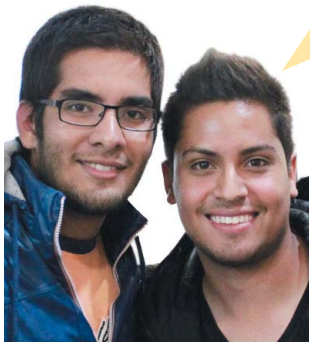
유진일 동유럽학대학 헝가리어과 윤선경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이지은 어문대학 중앙아시아어과 최소영 통번역대학 일본어통번역학과 라승도 러시아연구소 HK교원 최우익 러시아연구소 HK교원



earTHeme

올림픽, 우리나라가 제일 잘나가

2012 런던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와는 서로 다른 수확을 거뒀지만 다른나라 역시 결과 하나 경기 하나에 울고 웃었을 터, 우리학교에서 공부하는 각국의 유학생들이 느끼는 자국의 올림픽이 궁금하지 않은가. 그들이 말하는 올림픽의 즐거운 점, 아쉬운 점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덤으로 각 나라의 인기 스포츠까지 알아보자. **편집자주**



▲멕시코, 데이비드(David), 글로벌 경영 소속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멕시코가 무난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 총 성적은 부진하지만 올림픽 최고 인기 종목인 축구에서 우리 멕시코가 최초로 금메달을 따서 아주 행복했고 다음 올림픽은 축구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가 잘하고 또 인기 있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이번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축구가 유일한 인기 스포츠입니다. 멕시코 거리에는 언제나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축구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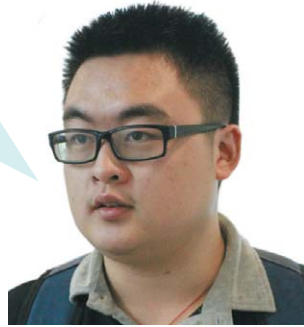
한국의 축구 축구 역시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진출을 맞은 후 국내 축구팬들이 급증했고 그에 이어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리그에 진출하면서 한국축구는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는 한국대표팀이 일본을 이기고 최초로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한국의 탁구 한국에서의 탁구도 중국 못지 않게 인기가 있다. 우리나라에 탁구가 도입된 계기는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1924년 경성일일 신문사가 제회 탁구 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급격한 보급이 시작됐으며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3개의 은메달을 거머쥐는 성적을 거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올림픽 강국인데 이번 올림픽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중국이 1등을 했지만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는 미국을 이기지 못했어요. 물론 선수들이 딴 메달 수는 많지만 조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올림픽 강국이기 때문에 중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중국하면 탁구가 떠오르는데 중국에서 탁구란 어떤 스포츠인가요?
탁구는 중국의 국민 스포츠죠. 이번 올림픽에서 남자 여자 △단식 △복식 모든 탁구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아주 뿌듯합니다. 중국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 탁구장이 마련돼 있고 체육 커리큘럼에 탁구가 필수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주우가, 교환학생



한국의 배구 한국은 배구 강국이다. 국제대회에서는 17세 이하로 구성된 여자 주니어 배구팀이 세계 12강이 겨루는 세계 유스 배구 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91년에는 남자팀이 악전고투 끝에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배구리그가 열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자국의 이번 올림픽 성적에 만족하세요?
이번 올림픽 성적은 조금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가 10개 정도의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개밖에 따지 못했죠. 특히 폴란드의 주종목인 배구에서 러시아팀에게 패해 은메달밖에 따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폴란드 배구팀이 제일 유명한데 배구는 폴란드에서 인기 종목인가요?
당연히 배구가 제일 인기있죠. 남녀노소 다 배구를 즐겨하고 모두 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배구 국가대표 남자팀이 많은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쿨렉 선수, 비니아르스키 선수같은 실력있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최강팀이라고 할 만큼 자부심이 있습니다.



▲폴란드, 필립(Filip), 어학당 소속



▲인도네시아, 아침 살드 배사라마(Achlam Sald Basalamah), 교환학생

인도네시아가 이번 올림픽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런던올림픽은 대체로 절망적이었어요. 금메달은 하나도 따지 못했고 은메달과 동메달 하나씩 따냈어요. 특히 우리의 주종목인 배드민턴을 강국 중국에게 패하여 아주 슬펐어요. 언젠가는 인도네시아도 올림픽 강국으로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대부분 잘하는데 제일 잘하는 스포츠가 배드민턴인가요?
당연히 배드민턴이죠. 물론 이번 올림픽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배드민턴은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그리고 누구나 잘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냥 거리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일반인도 실력이 수준급이구요.



한국의 배드민턴 한국에서도 배드민턴은 인기 스포츠다. 장소에 제한이 적고 라켓과 셔틀콕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즐겨하는 스포츠다. 배드민턴 선수 중 특히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흥대 선수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런던 올림픽에 바로 인도네시아팀에 패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박준서 기자 86jspark@hufs.ac.kr

세계 브리핑

폭풍 아이작, 아이티 강타

열대 폭풍 아이작이 지난 달 25일(토)에 아이티를 강타했다. 아이작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며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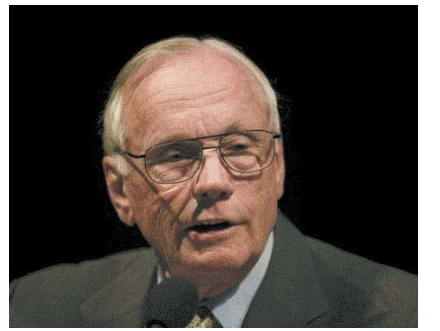
아이작은 아이티의 남쪽 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으며 지속 60마일의 강풍으로 남부 해안의 관광 휴양지인 작벨에서 건물 및 주거공간에 큰 피해를 입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토마제우에서 벽이 붕괴되는 사고를 당한 10살짜리 여아를 포함해 적어도 네 명이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아이작은 쿠바를 지나 현재 플로리다키스제도를 향하고 있다.



▲ 열대 폭풍 아이작의 이동 예상 경로

달에 착륙한 최초의 인간, 닐 암스트롱 사망

'인류의 거대한 진보'를 이루며 달에 착륙했던 최초의 인간, 닐 암스트롱이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가족들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생일 이틀 후인 지난 달 5일(일)에 위심우회 수술을 했으나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故 닐 암스트롱의 생전 모습

아폴로 11호 계획의 수장이었던 암스트롱은 1969년 7월 20일에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사람으로 기록됐다. 그는 만지로 가득한 달의 표면에 한 발짝 나갈 때 "한 사람에게만은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2012 런던 패럴림픽, 드디어 막이 오르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관중들이 지난 달 29일(수) 저녁에 열린 2012 런던 패럴림픽의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11일간의 일정 동안 사상 최대인 165개국 출신의 약 4,280명의 선수들이 20개 이상의 종목에서 500개 이상의 금메달을 두고 경쟁한다.

개막식은 △3000명 이상의 성인 자원봉사자들과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됐다. 성화는 런던 동부에 위치한 올림픽 공원으로 옮겨졌으며 패럴림픽의 발상지인 스톡 맨데빌에서 출발하여 런던에는 29일(수) 아침에 도착했다. 현재 230만 장의 패럴림픽 입장권이 팔렸으며 이에 영국 현지로 향하는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 마라톤러 클레어 로마스가 런던 트라팔다 광장에서 패럴림픽의 성화를 밝히고 있다.

흡스토리 Hufstory

1화 2화 3화

권수정 기자

한국어

〈첫 만남〉

9월 개강 첫날 심리학 수업에 늦어 인문관 4층으로 헬레벌떡 뛰어 겨우 수업에 늦지 않았다.

사람이 꽉 찬 강의실 안에서 빈 자리는 한 자리 뿐이었다.

"저..여기 앉아요 될까요?"

"아..네..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자리를 내어준 남자는 뭔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왜 그런지 잠시 의아했을 뿐 나는 다시 수업에 집중했다.

수업이 끝나고 그 남자는 뭔가 할 말이 있어보였지만 나는 다음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다음호에 계속.....



아랍어

〈أول لقاء〉아랄 리카

محاضرة علم النفس، لكن ركنت الى الطابق الرابع، بسبب ذلك ما تأخرت في أول يوم من الفصل الجديد. تأخرت

في أول يوم من الفصل الجديد. تأخرت في أول يوم من الفصل الجديد. تأخرت

في أول يوم من الفصل الجديد. تأخرت

في أول يوم من الفصل الجديد. تأخرت

في أول يوم من الفصل الجديد. تأخرت

في أول يوم من الفصل الجديد. تأخرت

في أول يوم من الفصل الجديد. تأخرت

في أول يوم من الفصل الجديد. تأخرت

في أول يوم من الفصل الجديد. تأخرت

في أول يوم من الفصل الجديد. تأخرت



중국어

〈初面〉추미엔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九月，开学的第一天，由于迟到心理学课，我急急忙忙地跑到讲学楼四层才进了教室。



운동하고 싶은 학생들, 운동할 수 없는 운동장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운동장에서는 야구를 하는 학생들, 축구경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는 학생들 모두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운동장, 그러나 면적이 줄어들고 시설이 낙후되기 시작하며 점차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졌다. 학생들은 운동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학생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운동장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편집자주

운동을 하면 위험한 운동장?

사례 1. 우리학교 중앙미식축구 동아리 'Black Knights'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연습을 한다. 중앙미식 축구부 소속의 한 학생은 어김없이 연습을 위해 운동장으로 나왔다. 운동장 한 칸에서 축구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조심해서 연습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풀었다.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고 이 학생에게 같은 팀 동료는 공을 던졌다. 그는 자신의 키를 넘어 뒤 쪽으로 날아가는 공을 잡기위해 몸을 반쯤 돌린 상태에서 뛰어가는 동안, 축구하던 학생 위치를 미처 파악할 수 없었다. 결국 축구하던 학생과 크게 부딪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사례 2. 야구 동아리들은 공이 멀리까지 날아가고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이른 아침시간에 연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습이 있던 날 아침에 야구 동아리 학생들은 장비들을 잔뜩 짊어지고 운동장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예비군 훈련이 있던 날이었고, 예비군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운동장에 들어와 주차된 상태였다. 홈 플레이트가 위치한 맞은편에 군복을 입은 학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동시에 야구 동아리의 연습이 진행됐다. 부원들은 버스와 예비군 학생들이 맞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연습의 성격상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타자의 배트에 맞은 야구공은 승차를 기다리던 학생들 가까이 까지 날아갔으며 심지어는 버스를 직접 맞추는 일도 발생했다.

위험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

애매한 규정, 혼란스러운 학생들

우리학교 운동장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학기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5시가 넘은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될까. 운동 동아리 학생들에 따르면 5시 이후는 중앙 운동 동아리 전용시간이었다. △월 △수 △금에 축구 동아리에서 사용하며 화요일과 목요일은 다른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동아리 학생들의 공통된 설명이었다. 그러나 체육실 김태완 조교는 "그 이후의 시간은 학교에서 통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을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운동장이 꼭 운동 동아리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교에 운동장 사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것이 정작 실제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소통에서의 혼재는 일반 학생

들과 운동 동아리 학생들이 동시에 운동장을 사용하게 돼 혼란을 가중시킨다.

축구 동아리, "좁아서 경기하기도 힘들어"

우리학교 운동장의 규모는 약 345.9*70.5m²(3237.3m²)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보통의 축구장의 면적이 120*90m²(10800m²)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학교 운동장은 일반적인 축구장의 면적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기존의 운동장조차 넓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미네르바 건물 건설 당시 우리학교 운동장 일부는 임시로 공사자재를 쌓아두는 곳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 장소는 잔디가 있는 녹지공간으로 사용되며 운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에 대한 축구 동아리의 특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 축구부 관계자는 "경기를 해보면 비좁은 운동장으로 인해 사이드라인과 관중석이 너무 가까이 위치하여 운동하는 선수뿐 아니라 관람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 질 수 없다"며 "이런 식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교내 축구대회인 외대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 배수시설이 불량한 우리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물 웅덩이를 피해 운동하고 있다.

펜스, 배수시설...시설은 낙후, 관리의 허술

먼저 우리학교 운동장은 모래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배수시설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생겨 운동을 하기 불편한 것은 물론이며 물에 모래가 흘러 내려가 굴곡이 많고 딱딱한 지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운동하는 학생들은 다칠 위험을 스스로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대훈(사회·행정 12)군은 "그나마 있는 흙조차 알아서 아무리 땅을 고르더라도 운동장에 굴곡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시설은

인문관 쪽으로 설치돼있는 펜스가 전부이다. 그러나 이마저 앞에 잔디가 조성되며 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운동장을 지나가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색하게 됐다. 축구 이외의 운동을 하기위한 운동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미식축구나 야구와 같이 경기 진행에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학교 운동장에서 전혀 경기를 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 야구 동아리에서는 다른 대학과의 경기들 중 대부분을 상대 학교에서 한다고 밝혔으며 미식축구 동아리에서도 시설의 부족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시합한다고 말했다.

학생들 요구는 뒷전, 규정에 얽매이는 학교

우리학교 학생들은 운동장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학교 중앙미식축구 동아리 주장 임재용(동양어·베트남 07)군은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훨씬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며 "또한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면 좁은 운동장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동시에 야간에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사이버 외대 공사를 하며 운동장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래를 새로 덮는 복토작업만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조잔디나 야간조명을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는 학교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었다.

또한 운동장 면적을 줄이는 요소로 지적된 잔디공간에 대하여 학교 시설관리팀 윤이식 팀장은 "사이버 외대 건물을 새롭게 건설하는데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녹지공간이 필요했는데 우연히 운동장 한 쪽에 조성했던 잔디밭이 녹지 공간 면적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히며 "이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규정을 따르려면 이 공간은 계속 유지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사이버 외대 건물 공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운동장 이외의 운동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운동할 곳을 찾지 못한 학생들은 자칫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학교에서 안전 등의 문제로 출입을 제한한 곳에 발을 들여놓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앙 축구 동아리 주장 우태욱(상경·국통 08)군은 "운동장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스포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문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동을 통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 잔디밭(868m²)이 조성되며 기존 운동장이 5\1정도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좁아진 운동장을 이용하기 위해 운동 동아리를 비롯한 학생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주거문제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특히 학교 앞 주거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학생들은 글로벌캠퍼스 주변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자취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위해 학교수업에 소홀해지는 이상한 현실.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편집자 주

사례① 백종완(경상·국경 11)군은 작년 중순, 통학이 힘들어 원룸을 구해 자취를 하려 했으나 '1년 치 월세를 일시불로 내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당황했다. 다른 대책이 없는 백군은 보증금 50만원과 1년 치 월세 600만원을 한 번에 내고 집을 계약했다. 백군은 "터무니없는 계약인 것 같지만 어쩔 수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친구들이 많다"고 밝혔다. 백군은 방학기간에는 방을 비움에도 불구하고 방학동안의 월세까지 지불하고 있었다.

사례② 윤보미(어문·프랑스어 10)양은 통학시간이 왕복 6시간에 이른다. 하지만 학교 기숙사생으로 선발되지 못해 자취생활을 계획한 윤양은 학교 앞 원룸들의 가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피스텔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윤양은 월세와 더불어 겨울에는 가스비 8만원 내외를, 여름에는 전기세 5만원 내외를 지불하며 식비까지 감당하고 있다. 윤양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세와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번 돈을 허공에 뿌리며 학교를 다니는 기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학생 "못견디겠다", 집주인 "적당한 가격이다"

현재 외대 사거리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 대부분이 인터뷰를 통해 '집값이 부당하게 비싸다'고 답변했다. △보증금 50만원에 5개월 치 월세 170만원을 한 번에 냈으나 '관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재성(경상·경제 07)군 △학교를 다니기 위해 원룸을 구했으나 월세를 감당하려면 아르바이트 없이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조백규(경상·국경 11)군 △비교해보니 가격은 같은데 서울 원룸들의 시설이 훨씬 좋았다며 모현 근처의 주거비용이 부담하다는 심예리(동유럽·노어 11)양 모두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집주인들의 입장은 학생들과 달랐다. 익명을 요구한 중년 남성과 여성이 각각 운영하는 오피스텔 원룸의 가격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이다. 이 남성은 "서울에서도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은 모현보다 훨씬 비싸다"고 주장했다.

월세를 한 번에 일시불로 내는 경우에 대해 묻자 여성은 "원래 관습상 6개월 혹은 1년을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꼭 월세를 한 번에 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회피했다.

주거비용, 제 2의 등록금 수준

학생들의 불만대로 '모현 일대의 주거비용이 과도하게 높은가'와 '월세를 일시불로 내는 계약이 행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외대사거리 주변 5개의 공인중개사와 집주인들을 찾아갔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다섯 곳 모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평균으로 제시했다. 공인중개사는 "가장 저렴한 원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고 비싼 원룸의 경우에는 50만원"이라고 밝히며 "이제 2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토틸 텐데 보증금을 내릴 경우 집주인들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공인중개사 별 평균 원룸 시세」

- 공인중개사 500/40
- 공인중개사 500/35
- 공인중개사 500/35
- 공인중개사 500/35
- 공인중개사 500/35

「일시불로 내는 한 학기 방세」

월세 30 × 6개월 = 180만원
월세 35 × 6개월 = 210만원

기자는 지난 달 26일(일), 실제로 집을 구하는 학생으로 가장해 집주인들에게도 집값을 문의했다. 오피스텔의 주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일시불로 6개월 치 180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한 학기는 4개월인데 6개월 치를 한 번에 내야 하느냐"고 묻자 "모두 그렇게 내고 있고 다른 곳보다 이곳이 훨씬 저렴하다"고 답했다. 오피스텔 또한 보증금 500만원과 6개월 치 월세 210만원을 한 번에 낼 것을 요구했다. 기자가 4개월 계약을 요구하자 "4개월이면 한 달 월세를 50만원으로 계산해 2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토로한 '불리한 계약'의 실태는 사실이었다.

높은 생존의 비용 그 이유는



모현 사거리에는 평균 20여개의 가구를 가진 오피스텔이 23여개 있으므로 460~500여명의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캠퍼스 재학생의 수는 8000여명이다. 제 2기숙사의 수용인원이 1720명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6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거나 자취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학교 앞 원룸은 적는데 수요자들은 많아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거의 없는상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에서 법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한 교수는 학교 앞 상황을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지어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가격이 너무 높고, 각 통신사 마다 비슷해 소비자들은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학교 앞 원룸가격의 실태가 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캠퍼스 앞의 주거 상황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학교와 총학생회의 노력이 중요"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정책을 연구하는 '하우징 라이트 프로젝트 (Housing Right Project)'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 담당 연구원 성승현씨는 "글로벌캠퍼스 주변에 주택이 밀집돼있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월세비용이 매우 높고,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총학생회와 학교 측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캠퍼스의 기숙사 수용률이 20% 초반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을 50%정도 까지 올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해결책으로는 서울시가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학교 본부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집주인들과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학교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을까?

최태경 학생감동팀장은 "학생들이 이렇게 비싼 월세를 감당하며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며 "학교 측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니 학생들이 합심해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학교 측이 지자체와 연결이 된다면 그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것"이라며 해결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사실 학생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채학기(공과·정보통신 09) 생활협동조합장은 "작년 주거비용 조사는 인력이 부족해 흐지부지 됐다"며 "올해 말에는 조사 후 통계를 낼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학생회에서는 작년 겨울부터 학교 주변 원룸정보를 조사해 결과를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현성(통번역·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2008년과 2009년 서울대가 국가지원을 받아 '하숙비 지원 사업'을 실행한 것을 참고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측과 상의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실현이 어려울 듯하다"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김계선 기자 86ksholic@hufs.ac.kr

“ 제2의 등록금 집값, 이를 위해 뭉친 세 대학 ”

이번 해 3월,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가 힘을 합쳤다. 세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주거문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5월 3일(목)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7명의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주거 네트워크에서 조사단 팀장을 맡고 있는 박아영(홍익대 09)을 인터뷰했다.

Q.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요?

주실무는 학교 주변 자취나 하숙집들의 △주소 △가격 △시설 등의 정보를 수집해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양식에 맞춰 기재하면 집주인들이 홈페이지에서 시세를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를 통해 집주인들이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이 올리는 것을 견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조사를 다닐 때 하숙집들의 경우 '다른 하숙집들은 얼마인지' '시설은 어떠한지' 많이들 여쭙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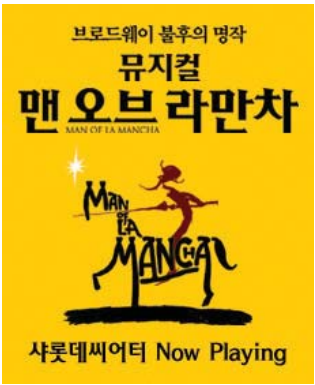
Q.앞으로 주거 네트워크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홈페이지 활성화가 중요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하며 방이 언제 비워지고 언제 다시 채워지는지 꾸준히 조사하고 있어요. 만약이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주거 네트워크 이용 빈도는 낮아질 것이고 사업 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계선 기자 86ksholic@hufs.ac.kr

극과극 기자 고정칼럼 문나운 기자

진실된 기사가 되고 싶다면



▲뮤지컬<맨 오브 라만차 (Man of La Mancha)>

길지만 마치 1초같이 짧게도 느껴졌던 방학을 뒤로 한 채 또 다른 학기가 시작됐다. 누구나 새 학기 수첩에는 시작에 대한 기대와 긴장으로 잡은 계획과 다짐이 빼곡히 쓰여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만 세상이 그런 당신에게 터무니없는 계획이라든 혹은 비현실적이라든 비웃음을 보낸 적은 없는가. 세상의 잣대에 맞춰 주눅 들기 전, 잠시 이루지 못할 꿈을 몇 백번이고 되풀이해서 외치는 돈키호테를 만나보자.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Man of La Mancha)>는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공무원이 돼 교회의 세금을 징수하려 한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감옥에서 세르반테스는 그곳 법에 따라 죄수들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된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대본으로 감옥에서 연극을 꾸민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돈키호테가 되는 것이다.

이런바 기사이야기 메나아인 알론조는 스스로를 돈키호테라는 이름의 기사라고 믿는다. 때문에 그의 인생 최대의 목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과 공주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닌 그는 여관을 성으로, 여관 주인을 영주로, 매춘부를 공주라 믿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가 그들을 지키고 독한 싸움을 하며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 꿈, 이를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그는 잡을 수 없는 별이라도 힘껏 팔을 뻗는 것이 자신의 갈 길이라고 여긴다. 즉 멈추거나 돌아보지 않고 주어진 길을 따르려라는 사명을 가진 진짜 기사인 것이다.

세상이 바라보기에 바로 같은 사람일지라도 돈키호테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큼은 기사였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길 포기하지 않았다. 불가능한 꿈, 어쩌면 세상이 비웃는 꿈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어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내가 나를 믿을 때 이를 수 없는 꿈은 이미 이뤄진 것일지도 모른다.

화끈한 청년들의 뜨거운 여름나기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의 농촌봉사활동대(이하 농활대)는 경상북도 청송에서 6월 25일(월)부터 7월 4일(수)까지 9박 10일의 농촌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강지우(사범·프교 07) 총 농촌봉사활동대장(이하 농대장)은 "예년보다 많은 340명 학우들의 참여 열기와 청송군 농민회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농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제 농촌활동은 농활대 학우들에게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9박10일간 농사꾼이 됐었던 청송 농활대의 생생한 발자취 속으로 빠져보자. **편집자 주**

◆ "모두 10일간은 학생이 아닌 농민이다"-노동봉사

고속버스 창 밖의 풍경이 도시에서 논으로 산에서 들로 세 번 쯤 바뀐 후 30여명의 광덕리 농활대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군민회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어른들을 형님, 형수님으로 불러야한다' 등의 유의사항 교육을 받은 대원들은 저녁이 돼서야 9박 10일간 머물 마을회관에 도착했다. 그날 밤 광덕리의 권오만 이장이 마을 회관을 방문해 "도와주려와줘서 고맙다"며 "힘들게 와준만큼 앞으로 10일간은 광덕리 농민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날부터 젖은 빨래도 한 시간 만에 바짝 말라 버리는 짙은 청송군의 태양 속에서 농사일이 시작됐다. 농대원들은 오전과 오후 노동시간에 △논 파내기 △감자 캐기 △밭에 부직포 덮기 △조경수 지지대 박기 △농약치기 등의 작업을 도왔다. 함한결(서양어·프랑스어 12)은 "논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적응하기 힘들었다"며 농사일의 어려움을 말했다. 마을 노부부의 밭을 농기계 없이 모두 수작업했던 최다은(서양어·이탈리아어 12)은 "무척 고됐지만 모두 열심히 작업해서 넓은 밭일을 끝낼 수 있었다"고 협동의 보람을 전했다. "처음에는 옷이 더러워지고 땀 흘리는 것이 싫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농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채소영(서양어·프랑스어 12)의 말처럼 농대원들은 시간이 갈수록 광덕리의 농부가 되고 있었다.



▲ "일쑤~ 좋다" 흥겨운 풍물패 가락에 어깨를 들썩이는 마을 어르신들

◆ "농촌이야 늘 힘들지"-농촌 현실 알기

새참으로 나온 막걸리 한통을 들이키면서 거나해진 형님들과 나눈 농촌 현실에 관한 이야기는 농대원들에게 땀의 보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했다. 최규빈(서양어·이탈리아어 11)군은 "8000평의 밭일을 영농회장님 혼자 하신다는 말을 듣고 농촌



▲콩밭 매는 아낙네 대신 콩밭에 부직포 덮는 남정네들

일손 부족현상의 심각성을 느꼈는데 이런 농촌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인식적이었다"고 말했다.

오후 노동 뒤에는 교양교육이 진행됐다. 농촌에 대해 배우고 그날의 우수 농대원을 뽑았다. 마을대장 김광환(서양어·네덜란드어 11)군은 "교양시간에 대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었지만, 교양시간이 좀 더 넉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소감을 전했다.

강지우 총 농대장도 농자재 값이 안정화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이나 열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에 대학생들이 교양을 통해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농활에서 교양시간의 필요성을 전했다.

◆ "같이 즐기면서 연대감이 커졌어요"-문화 봉사

6월 30일(토) 오후에는 마을아이들을 위한 멘토링이 진행됐다. 주로 유아와 초등학교생이 많았기에 전문적인 멘토링보다는 함께 놀아주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맞는 방법이었다는 김광환 군의 말처럼 대원들과 마을아이들은 친척 형, 누나처럼 정이 폭 들었다. 박성진(서양어·프랑스어 12)군은 "종이접기를 함께 하고 사소한 고민도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며 웃었다.

다음 날인 7월 1일(일)에는 광덕리 농활대원들

이 마을 어른들께 감사하는 의미로 마을잔치를 준비했다. 서투르지만 손수 △김밥 △전 △국수 등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어른들을 생각하는 농활대원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농대원들이 준비한 음식들과 외대풍물연합의 공연으로 마을어른들과 농대원들의 연대감도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었다.



▲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마을 아이들과 농활대원들

농촌 봉사를 마친 후 마지막 1박2일은 모든 농활대원들과 각 마을의 형님들이 모여 이번 농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접했던 농촌의 모습과 노동은 낯설었지만 9박 10일간의 농촌활동을 통해 농활대원들은 농민과 학생이 닮아간다는 것, 서로 같은 것을 고민하는 연대감을 배우고 돌아왔다.

권수정 기자 86sj@hufs.ac.kr

운동장 기자 고정 칼럼 (월)

표적을 향하는 총성을 위하여

이번 해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던 가장 큰 이슈는 런던 올림픽 소식이었다.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함께 울고 웃으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은 모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했던 많은 종목 가운데 하나는 사격이다. 특히 김종현 선수가



▲ 사격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자신의 과녁을 조준하고 있다.

한 채 사대*에 들어선 순간,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모두 8개의 과녁과 마주한다. 그러나 각각의 선수가 맞춰야 하는 과녁은 단 하나, 오직 자신의 것이다. 선수들은 경쟁자의 표적이 보이더라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관중의 행동이나 오심 같은, 능력 외적인 부분에서의 집

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겨내야 한다. 한참동안 자신의 표적을 노려본 후에야 그것을 향해 격발할 수 있고, 당당하게 좋은 성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에센스 선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자신을 발견할 지도 모른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막히거나 처음 생각했던 목표가 흐려져 오히려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과녁을 잃게 된다면, 잠시 호흡을 멈추고 천천히 자신의 목표를 겨냥해 보자. 자신이 쏘아야 할 목표를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대 : 사격 경기에서 사격 할 때 서는 자리

맨눈으로 보는 그림 기자 고정 칼럼 임채운 기자

그 녀석의 침묵

그림을 펼친다. 이 그림은 풍경을 담은 그림이지만 입체적이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 바다가 멀리 있고 소년이 가까이 있는 것은 알겠으나 그 차이가 극명하지도 않다. 3D라기 보단 2D다. 평면적인 이 세계엔 한 소년이 고즈넉하게 앉아있다. 소년의 세계가 궁금해진다.



▲ Winslow Homer, Waiting for Dad aka Longing

소년의 세계에서는 날씨가 흐리다. 회색 하늘이 열리게 깔려있다. 소년은 낮고 작은 배 위에 앉아있다. 소년의 세계에선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그저 하염없이만이 존재하는 듯한 여기에서 이 녀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림은 소년의 표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림의 제목을 통해 소년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녀석의 작고 딱딱한 모습은 우리 대부분을 축소해 놓은 것 같기도 하다. 우리가 보다 찬란하고 탄탄한 미래를 기다리며 가끔 불안정한 현실을 노려보는 것과 닮지 않았는가.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지금이란 것은 불안하고 위태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원근법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 평면적인 그

림을 좀 더 곱씹어보면 문득 느껴지는 게 있다. 사실 삶은 입체적이기 보단 끝없는 평면이며, 미래라는 건 영원히 오지 않는 것임을. 지금의 다음은 미래가 아니라 또 다시 지금이다. 시간은 현재의 연속인 것이다. 소년은 이곳에 앉아 아빠가 오지 않는 바다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아빠를 맞이하는 것인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바다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묵묵히 존재해왔다. 그림 속 몇 척의 배엔 아빠가 없을 지도 모르지만 소년 역시 바다처럼 묵묵히 앉아있다. 그림이 소년의 표정을 표현하지 않고 바다를 향한 시선만을 제시하는 것은 기다림이 주는 외로움과 불안함이 아닌 바다를 닮은 묵묵함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림을 닫는다. 소년의 세계를 벗어나 이곳으로 돌아온다. 불안하고 위태로우도록 현실을 부정하기보단 오히려 할 일에 충실하는 게 어떨까. 소년의 침묵을 새기며, 지금을 받아들인다.

(학술 인터뷰)

취업에만 유용한? 실생활에도 유용한! 경영학

글로벌 경영대학 박진우 교수를 만나다

Q 박진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경영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처음부터 경영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학교 무역학과,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연합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첫 직장에 회의감이 들면서 무엇인가 더 재밌는 것이 없을까 찾아봤지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다 보니 경영학에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에서부터 경영학교수가 돼야겠다고 생각해 계획대로 살았다기보다는 일에 대한 흥미로 지금 자리에 까지 오게 된 겁니다.

Q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사셨네요. 그렇다면 광범위한 경영학 중에서도 교수님이 특히 흥미를 느끼시는 분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 경영학이라고 하면 기업 중심이니까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인사관리 쪽이 보편적이죠. 그런데 저는 재무나 금융쪽이 재미있었어요. 여기에는 기업의 내부 구조조정이나 기업 주식 등의 증권시장, 재무리스크관리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Q 교수님의 대표적인 연구 분야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연구실적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가 2010년에 쓴 저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자산시장」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데요. 최근 강남이나 목동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맞고있는 현실을 이 책에서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유소년층이 줄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역피라미드형태로 변하고 있어요. 이 현상은 자산시장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 국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의 80%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건물 대부분의 소유주가 1955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건물을 앞다투어 투자를 해 집값이 올랐고 현재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 부동산을 수요할 다음 세대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고 다음 세대가 이 집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기초 원리인 수요-공급법칙에 의해서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Q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A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소득대비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죠. 예를 들어 현재 강남의 30평 아파트는 10억 정도인데 이것을 사려면 매달 950만원씩 할부금으로 15년 동안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연봉이 1억 5천은 돼야 하고요. 이러한 실정에서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다음 세대가 이 집값을 견뎌낼 여력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논문 내용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줄이는 축소형 구조조정은 장·단기 기업가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확장형 구조조정은 단기성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성과면에서는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긍정적이나 경제위기 기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축소나 확장에 상관없이 기업규모가 크고 체계적 위험이 높을수록 활발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 기업가치는 내부적인 축소나 확장을 통해 달라지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기업가치를 외부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할 예정이 있는지요.

A 기업가치를 외부적으로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투자'라는 것이 있어요. 투자 중에서도 저는 특히 주식투자 분야와 관련해서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보호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대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어서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공시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소 마련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박진우 교수님의 주요 연구·발표 실적〉

- "Dividend Yields and Stock Returns: Evidence from the Korean Stock Market"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2010, Vol 39, No. 6, pp. 736-751. 외 SCI급 저널에 논문 다수 발표
 - 기타 저명한 국·내외 학술지를 통해 1992~2012년 동안 논문 20여편 이상 발표
1.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의 전보호" 재무연구, 2012, pp.89-121
 2.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의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금융안정연구, 2011, pp.51-81

Q 자산시장 이외에 경영학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기업의 사업 축소와 확장을 비교분석한 「구조조정과 기업가치」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의 사업 구조조정 중에 어떠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기업가치 증대에 가장 바람직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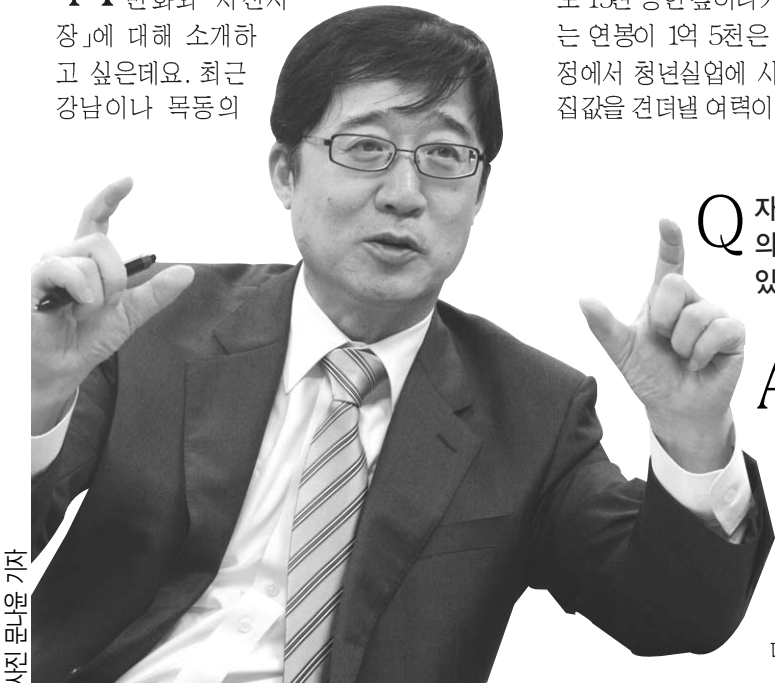


사진: 문나윤 기자

‘황금의 고리’로 여행을

러시아연구소 제120차 콜로키움 개최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 콜로키움에서 블라디미르와 이바노보의 아름다운 정교회 사원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교수님들

러시아의 ‘황금의 고리(Golden Ring)’를 아세요? ‘황금의 고리’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북동부에 위치한 옛 러시아의 △역사 △문화 △예술의 중심지역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 지역들의 문화재들은 대다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을 정도로 유구한 역사와 함께 수려한 모습을 보전하고 있다. 이 ‘황금의 고리’에 속하는 ‘블라디미르와 이바노보 지역의 사려연구’라는 주제로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이 지난 달 30일(목)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에서 제120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약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콜로키움은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인 최우익 박사의 발표에 이어 특별히 초빙된 러시아·CIS연구계의 신진학자들 및 러시아 전문가들과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콜로키움은 블라디미르와 이바노보 주를 직접 현지조사한 최우익 박사의 보고와 함께 이 두 지역들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이뤄졌다. 14박 15일의 현지조사에서는 블라디미르와 이바노보 지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해당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탐방 △한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현지조사 보고서 발표자 최우익 박사는 “블라디미르와 이바노보 주는 러시아 고대문화의 원형과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와 이바노보 지역 사려연구는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 <러시아연방총서> 발행 사업의 일부 과정이기도 하다. 우선 블라디미르는 1108년부터 러시아의 중심지역 역할을 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도 많았던 지역이다. 황금의 문, 우스펜스키 성당과 같은 고대유적 및 러시아 정교회 사원들이 산재해있기도 하다. 경제규모는 작으나, 연방교통과 관련된 도로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반면 이바노보는 황금의 고리 지역에서도 주요 관광도시로 꼽히는 곳이지만 직물산업이 발달했고 거대한 직물 박물관도 있다. 편직물 공업이 발달한 까닭에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많다고도 알려진 도시이다. 이 날 참여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지하자원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생산력과 소득수준은 낮지만 이 두 지역이 러시아 역사·문화 사업의 중심지임에는 틀림없다고 공감했다.

콜로키움을 마무리지며 발표자 최우익 박사는 “블라디미르와 이바노보뿐만 아닌 주변지역들도 좀 더 조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의 콜로키움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3월부터 매달 개최된 행사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열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학회의 소리

‘타는 목마름으로 해방을 외치다’ - 정치외교학과 사회과학연구회 ‘갈증’

지난 달 16일(목) △경희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와 우리학교가 참가한 대학생사회포럼이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대학생사회포럼은 포럼에 참여한 학회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외부에 알려 대학 학회에 대한 의의를 고취시키려는 취지로 열렸다. 포럼에서는 경희대 정경대학회 아프리카사, 건국대 사회과학학회 생활도서관 등의 학회가 참가해 토론의 장을 형성했다. 특히 학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커리큘럼을 공유할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포럼에 참가한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사회과학회 ‘갈증’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발표했다. 갈증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분류하여 설명한 뒤 이를 토대로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발표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학회를 통해 활성화하고자 강조했다.

선정한 주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사회과학회 갈증은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

는 지성인을 키우자는 목표로 2009년에 창설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해방을 외치다’라는 슬로건 아래 갈증은 사회 문제에 대한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갈증은 비판적 지성과 담론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대학생의 역할을 강조한다.

갈증은 세미나를 통해 학회 활동을 한다. 세미나에서는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배 학회원들이 먼저 주제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이 끝난 뒤에는 후배 학회원들이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 등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 여기서 학회원들은 △사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사회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한다.

학교 밖에서도 학회 갈증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사회 문제에 관한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그 활동 중 하나로 지난 5월 1일에는 노동자의 날을 맞아 시청 광장에서 정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제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왔다. 학회원인 이지원(사회·정의 12) 양은 “고등학교에서 책으로 배우던 지식이 아닌 현실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대중매체로 전달받을 수 없었던 정보들을 학회 활동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에게 토론의 공간을 제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각을 넓혀주고, 이를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 노력하는 학회 갈증. 만지수(사회·정의 09) 갈증 학회장은 “우리가 세상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이런 공부만 하고 활동을 끝내지 않도록 우리의 지성들을 ‘실천’과 결합하려 한다.”며 “또한 그와 동시에 창조적이고 다양한 연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사회포럼에 참가한 학생들이 다른 학회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올해 처음 열린 이 포럼에서는 사회과학회 갈증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학회가 참가했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로그아웃

김경보 기자

마녀사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지난 달 13일(월) 2012 런던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경을 뛰어넘은 화합'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이번 올림픽은 오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박태환 선수 남자 자유형 400m 예선 실격 △조준호 선수 유도 66kg급 8강 전 판정 번복 △신아람 선수 여자 펜싱 에페 4강전 이른바 '1초 오심' 등 많은 사건들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번 올림픽은 일명 '오심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런 부당한 판정에 분노한 일부 국민들은 상대 선수와 심판에게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상대 선수의 SNS를 욕설로 뒤덮는가 하면 오심 판정을 내린 심판의 신상 정보와 사생활을 여과 없이 인터넷 상에 퍼트리기도 했다. 심지어 인터넷에 '오심'과 '심판'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오심 판정을 한 심판들의 SNS 주소가 떠오르기도 했다. 욕설과 함께 '이 주소로 들어가서 오심 심판을 응징하자'라며 인신 공격을 유도하는 글도 허다했다.

경기 결과에 대한 이러한 분풀이는 급기야 국가 간 감정 싸움으로 번져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모욕이 난무하기도 했다. 한 예로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에서 박태환 선수를 실격 처리한 캐나다인 심판이 중국인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엉뚱하게도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돌아갔다. 그 중에서는 모든 중국인을 한데 묶어 폄하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정정당당하게 금메달을 차지한 중국의 국가대표 쑨양 역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의 대상이 됐다.

유난히 오심이 많았던 2012 런던 올림픽을 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망스러워 했던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의 처사는 실망감의 표현이라기에는 도가 지나쳤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스위스 국가대표 '미첼 모르가벨라 퇴출 사건'이 그 사례 중 하나다. 지난 7월 30일(월)에 열렸던 남자 축구 예선 B조 스위스전에서 스위스 대표팀의 수비수인 모르가벨라 선수의 할리우드 액션으로 박주영 선수가 경고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한국인 누리꾼들이 모르가벨라 선수의 SNS에 사이버 테러를 가했고, 이에 대응해 모르가벨라 선수는 트위터에 한국인 비하 발언을 올렸다. 결국 미첼 모르가벨라라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제재를 받아 대표팀에서 퇴출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뽀퐁이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지만, 해외의 누리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조차도 모르가벨라 선수에게 인터넷 테러를 가한 누리꾼들의 대응이 도가 지나쳤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에게는 분풀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셈이다. 인터넷 테러를 가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해야 우리의 의사가 확실히 전달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비하와 차별을 가리려는 변명일 뿐이다. 당신도 혹시 이런 누리꾼처럼 마녀사냥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새학기, 계획만이 전부는 아냐

동문의 소리



남대현(노어과 89)
UNIST기초과정부 교수

2012년도 2학기 개강이다!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뿐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새학기 개강을 맞이하는 느낌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쉬움과 설레임! 학생들은 새학기를 맞아 지난학기에 마무리 하지 못한 전공공부 계획이나 봉사활동 또는 졸업 후 직장을 구하기 위한 준비를 재정비하여 실행에 옮기려고 할 것이다. 교수들도 지난학기 마무리하지 못한 연구나 다시 이전부터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못한 강의기법이나 새로운 수업을 위한 교재연구도 다시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서론이 좀 길었다. 나에게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자면, 나도 HUFSan이다. 나는 1989년도 3월에 우리학교 노어과에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999년 2월에 러시아 언어학 석

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약 10년간의 유학생 생활을 마치고 영어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지금은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렇듯 근 20년간의 대학교에 기반을 둔 학생 생활을 마치고, 현재도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니 앞서 이야기한 새 학기를 맞는 대학생이나 교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대학교와 오래 인연을 맺고 있다 보니, 나의 삶의 대부분은 대학교의 시간 개념 틀에 맞춰져 왔다고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대학교라는 공간의 시간 개념은 다른 공간이 허용하는 시간 개념과 비교할 때 좀 특이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15주 또는 16주로 이루어진 학기가 1년 동안 두 번 반복되는 2학기제로 운영되고내가 근무하는 UNIST는 더욱 특이하게도 1년 3학기제를 운영한다. 주어진 학기는 꼭 마무리 돼야 한다. 이리다 보니 한 학기를 잘 못 보내면 크게 봐서 1년의 반이라는 큰 덩어리의 시간을 허비한 듯한 느낌이 든다. 학기는 마무리되지만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간 것이다. 대학교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또는 한 달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정해놓은 계획

을 하루 이틀 또는 한두 주 정도를 융통하여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교라는 공간에서 학기라는 엄청난 양의 시간 계획을 수정하고 완성하려면 가끔은 다음 학기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우리가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획을 수정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 외적인 이유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내가 일을 계획만 했지 그 일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어떤 계획을 완성했을 때 그 결과를 디딤돌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을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었다. 프랑스의 화학자이며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퇴르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이미 100여 년 전에 "Chance favors the prepared mind"라는 이야기를 했다. 굳이 파스퇴르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얼마 전 한 개그맨이 이야기 하여 인터넷에 회자된 명언(?)은 2012년도 2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나와 우리 HUFSan에는 의 미심장한 조언으로까지 들린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그만 하고 늦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니까 지금 빨리해라." 2012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HUFSan의 건승을 기원한다!

일시
정지

나무와 청춘, 푸르름을 공유하다



교내의 녹음을 이루는 나무들이 유달리 푸르다. 이 나무들이 한창 푸를 때가 가장 뜨겁기도, 시원하기도 하다. 마치 우리들의 청춘과 같다. 우리들의 푸르른 청춘은 열정과 순수가 공존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청춘은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며, 열정이 있는 만큼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순수함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푸른 녹음만이 나무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녹음의 시절을 거친 나무는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열정과 순수로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달콤한 열매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열매를 기다리며 푸른 녹음을 더욱 질게 드리우는 나무처럼, 우리들도 당장의 결실에 급급하기 보다는 푸른 청춘을 치열하게 즐기는 건 어떨까.

글 · 사진 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지난호를 말하다 |

지난호를 말하다 |

이번 지난호는 기고글이 없어 빈자리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으로 채워주세요”



비둘기 칠판

서울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몽골어과 11학년 학우들

몽골어과 11학년 학우들아 안녕!
09학년 복학생 재우선배란다.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하려니까 낯 뜨겁고 민망하네. 하지만 타국으로 교환 학생을 떠나기 전 제대로 인사 한번 못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미안해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로나마 인사해 본다. 물론 수업을 같이 들었던 건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뿐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дотно найз*(가까운 친구, 내가 항상 강조했었던!)여서 그런가 얼굴 한 번 못보고 가는 게 너무 아쉽네. 이 짧은 글로 그 큰 아쉬움을 달래진 부족한 감이 너무나 크지만 그래도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아쉬움을 접어두고 동시에 내 교환학생 생활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해주었으면 해! 농담인거..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이런 내 실없는 헛소리를 잘 받아주었던 너희들에게 항상 고마웠어! 특히 11학년 김사립 정말 너무 고맙다! 리액션은 정말 너가 최고였단다! 그럼 사람을 비롯한 11학년 학우들아! 애기가 길어질수록 헛소리만 길어지니 이만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두들 한 학기동안 학교생활 잘하고 1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11학년 학우들 모두 잠시만 안녕!!!!

From. 김재우 (동양어 · 몽골어 09)

글로벌캠퍼스는 기고가 없어

이번 호에 실리지 않습니다.

비둘기 칠판에선 고맙고 사랑하는 분께 보내는 편지를 실어드립니다. 받는 사람은 군대 간 학우, 유학 간 학우, 졸업생, 휴학생, 빵차 아저씨, 교수님 등 우리 학교 사람 누구나 가능합니다. 학교 신문을 통해 조금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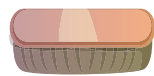
편지분량

한글 기준 4~7줄(엔터 없이), 띄어쓰기 포함 200자~400자, 원고지 기준 1매~2매

기고방식

△캠퍼스 △학부 △학과 △학년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편지글을 86healing@hufs.ac.kr로 보내주세요.

담당자 임채운 기자



사설

학내 갈등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대부분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으며, 나름의 명분을 갖추고 있게 마련이다. 대학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나름의 명분을 갖고 팽팽하게 대립하곤 한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노천극장 철거 문제는 학내 구성원이 대립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학교 측에서는 노천극장 소음으로 인한 면학 분위기 방해 등을 이유로 오래전부터 노천극장 철거와 잔디광장 조성 및 제2도서관 건립을 계획해 왔다. 이에 반해 총학생회는 노천극장이 집회, 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거보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달 수강신청 장바구니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학생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노천극장 철거를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설문조사 내용이나 문항 설정이 편파적이었다는 반론도 있지만, 설문조사 문항이 바뀌었다 해서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설문에 응답한 2907명의 학생 중 83.2%가 노천극장 철거를 지지했는데, 이 정도 인원이라면 설문조사 방식이 바뀐다 해도 유의미한 변동이 생기기 어려운 규모이며, 무엇보다 인터넷 외대생 커뮤니티 등에서 학생들이 노천극장 철거와 제2도서관 건립을 꾸준히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서울배움터 운동장 문제도 비슷하다. 학교측은 캠퍼스 여건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등을 이유로 운동장 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편이고, 학생들은 운동장 및 체육 시설이 교육 환경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내 갈등에 대해 당사자들은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외대학보 946호 사설에서는 학내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집중하기보다 '연구와 교육의 발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더 큰 명분을 가지고 학내 갈등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신은 학보의 동반자입니다

본지는 이번호(952호) 10면의 '지난호를 말하다'와 11면의 '비둘기 칠판' 코너 일부를 백지로 발행했다. 이 코너들은 독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 코너였지만, 이전까지는 기자가 직접 지인들에게 부탁해 글을 받아오곤 했었다. 그래서 기자와 비슷한 학과, 비슷한 학년의 학우들로부터 편중돼 모든 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었다. 본지는 이 코너들을 완전한 독자의 코너로 만들고자 과감히 이번호의 코너를 백지로 냈다. 이제 이 코너들은 독자와 함께 만드는 코너로 변했다.

학보의 변신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변화는 독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부터 시작했다. 우선 본지의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학보가 새로 발간될 때마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시의성이 큰 소식들은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게시할 예정이다. 몇 달 후 다가올 총학생회 선거 역시 실시간으로 투표율과 개표 상황을 올려 독자들이 개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준비할 것이다. 또한 군대에 간 남학우나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등 학교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에 있는 학우들에게도 학보를 보내기 위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학보를 놓는 가판대도 독자의 손이 더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 서울배움터 도서관 6층의 휴게실이나 글로벌캠퍼스의 후생복지관 매점 앞 등 독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을 새 가판대 위치로 선정해 독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대학 신문이 독자를 잃어가고 있다"는 말은 이제 식상한 이야기가 돼버렸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독자를 잃어간다"는 말은 결국 학보와 독자가 서로 별개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 말이다. 그러나 학보는 독자인 △학생 △동문 △교수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다. 모두가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 독자들이 학보를 마음껏 이용하고, 다 같이 학보를 만들어가는 그날이 기다려진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p>동문의 소리(8매) / 지난호를 말하다(6매) / 비둘기 칠판(3매)의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p> <p>■ 학보우체국 교환학생, 군대 간 친구 등 외대학보를 받기 힘든 이들에게 학보를 보내드립니다.</p>	소정의 선물	<p>원고료 - 외대생 5,000원 / 매 교직원, 동문 10,000원 / 매 (1매 = 200자 원고지)</p> <p>■ 증정품 - 매호 추첨을 통해 텀블러를 드립니다. ■ 십자말풀이 추첨을 통해 6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p>
기사제보	<p>facebook.com/newhufspress or www.oedaehagbo.com</p> <p>연락처 · 서울 02-273-2504 · 글로벌 031-330-4112</p> <p>외대학보 · 서울 국제학사 401호 · 글로벌 학생회관 212호</p> <p>편집장 강유나(영어 · 영어 11) 84yoonah@hufs.ac.kr</p>		

십자말풀이

"학보를 꼼꼼히 읽으면 답이 보인다"

	①			②	②				
①									
					③				
								④	⑥
	③				⑤				
	⑥								

1 가로열쇠

- 우리학교의 모의국제연합. 우리학교에서 열리는 모의유엔총회를 주최한다. <2면 참조>
- 이번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에 관련된 칼럼의 코너명 <8면 참조>
- 올림픽이 열리는 해. 올림픽 개최국에서 열리는 신체장애인들의 국제 경기대회 <1면 참조>
- 우리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로 학술면에 실린 사람 <9면 참조>
- 농촌봉사활동에서 서양어대와 사범대가 함께 방문한 마을의 이름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000 <8면 참조>
- 첫 수확을 하늘님에게 바치며 감사드린 일에서부터 비롯된 미국의 국민적 축제일

1 세로열쇠

- 조정 경기종목 중 하나로 키잡이 1명과 크루 8명이 한 조를 이루는 경기 <3면 참조>
- 1991년에 개봉된 이연걸, 임청하 주연의 홍콩액션영화제목
-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의 줄임말 <1면 참조>
- 이익을 적게 보는 대신 물건을 많이 팔아 전체 이익을 올린다는 뜻의 사자성어
-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 우둔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뜻하는 사자성어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강유나 부장 문나운 우보연 홍규원

정기자 권수정 김경보 김계선 김정원 박준서 신민지 양재상 유상민

이민정 이은결 임채운 홍진아

조교 이현주 정진경

제작 (주)경보기획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착한 『허브 더 카페』, 그곳의 우리 학생들을 만나다

“커피를 마신 당신, 기부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학교 국제학사 3층 동아리방과 과방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복도 한 칸에 학생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눈에 띄는 빨간 네모 간판에 ‘허브 더 카페’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이곳은 ‘기부 문화 습관화’를 위해 우리학교 창업 동아리 HUV(허브)에서 차린 카페이다. 공정무역을 통해 들어온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팔고 그 순수의 전부를 다시 학생에게 돌려준다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카페.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이 착한 카페를 운영하는 허브의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기자가 직접 이곳을 방문했다.

평범한 카페? 그럴리가!

허브 더 카페를 가기 위해 3층 복도에 들어섰더니 허공에 동동 떠 있는 빨간 화살표가 눈에 들어왔다. 피아노줄에 매달려 카페 위치를 꼬집어 알려주는 알람판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국 락밴드 Oasis의 ‘Let there be love’가 흐르고 있었다. 벽돌 무늬 벽지로 한 면, 빨간 벽지로 한 면을 꾸민 공간 안에 과자가 놓인 테이블과 금색 소파가 있었다. 커피를 건네주는 계산대 위, 장맛빛 차 ‘하마이까’가 담긴 와인잔이 눈에 들어왔다.



▲coffee break!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는 질문에 “모두가 재밌게 사는 사회”라고 대답한 홍사성(상경·경제 08)군이 얼음과 에스프레소를 섞어 사케라또를 만들고 있다.

이곳은 동아리방을 개조해 만든 카페이다. 창업을 꿈꾸는 허브 학생들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 속엔 커피만 있는 게 아니다. 이곳에서는 학교 밖 수많은 카페에선 찾기 어려운 독특한 음료들도 맛볼 수 있다. 이번 학기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우리학교의 특성을 담아 ‘세계테마여행’이라는 주제로 메뉴를 꾸몄다. 이들 음료의 공통점은 ‘건강하다’는 것이다. 과라나 주원료인 에너지 드링크가 오늘의 잠은 쫓지만 내일의 체력을 고갈시킨다면, 허브 더 카페의 과라나 음료는 잠을 쫓으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또한 “이게 바로건강함의 하이라이트”라며 이들이 자신 있게 말하는 인도 요거트 ‘라씨’에는 허브의 고집 있는 사연도 담겨있다. 라씨의 원료 키드는 유산

균을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재료인데 국내에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시중 판매되는 유산균 제품을 사서 넣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지만 기존 제품엔 합성착향료와 설탕이 들어있어 건강함을 지향하는 허브에선 차마 쓸 수 없었다 한다. “이런 고민을 무심코 엄마한테 털어놓았는데, 엄마가 다니시던 성당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인도 차에 관심 많은 아주머니를 찾아냈어요. 그 아주머니를 통해 라씨를 만드는 곳을 알아내 전화를 걸었는데 아랍어가 들려 깜짝 놀랐어요.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 너무 당황했죠.” 김연지(경영·경영 11)양은 그때가 떠오르듯 눈을 크게 떠 표정으로 당황스러움을 전달하며 말했다.

여러 갈래의 마음이 모여 채워낸 공간

맨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는 이들이 무슨 뜻으로 이런 예쁜카페를 똑딱지어낸 걸까. 사실 허브 카페를 장식하고 구성하는 물건 중 몇 가지는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거나 다른 기업에게서 기증받은 물건들이다. 그 중 하나가 카페 한 구석에 놓인 긴 소파였다. “3층 계단에서 쉬고 있었는데 1층 쓰레기를 치우는 텀프트릭 속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른 달려가 주워 와서는 철저히 소독한 후 리폼을 시작했죠.” 김연지양은 “이런 식으로 리폼을 여러 번 하다 보니 디자인 실력이 엄청 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해죽 웃었다. 쓰레기가 될 뻔했던 소파는 황금빛 천을 입고 카페 내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꼭 필요한 물건인 냉장고와



▲작적 키운 허브로 음료 모호도를 완성하고 뿌듯하게 웃는 김연지(경영·경영 11)양

테이블, 의자 몇 개도 기증받은 것이라 한다. 허브 카페의 취지인 ‘기부 문화 습관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도 사업가의 한 사람으로써 이 뜻에 동참하고 싶다”며 여러 사장님들이 기부해준 것이다. 기증받은 물건 이외의 것들은 허브 학생들의 노력으로 채웠다. 가장 저렴한 물건을 찾아 도매 시장에서 살다시피 한 건 기본이며, 재료를 구하기 위해 이태원과 대형마트를 몇 번이고 순례했다 한다. 유리창에 그려진 그림은 한국에 송출합학교 학생에게서 번역

일을 도와주며 얻어낸 것이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줘어진 채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오기도 했다. 2만원씩 걸었다는 동아리 회비 전부를 이곳에 투자한 건 당연한 사실이다.

당신과의 ‘맛좋은’ 사회 공헌

여러 사장님들의 물건 기증을 이끌어낸 허브 더 카페의 생각 ‘기부 문화 습관화’는 허브 학생들의 기업관을 담은 표현이다. 이들은 바람직한 창업가는 돈을 많이 벌든 조금 벌든 수익의 어느 정도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생각이라는 게 변하기 쉬운 거잖아요. 돈이 없을 땐 돈 벌면 기부해야지 해도 막상 돈이 생기면 그렇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습관은 생각 없이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허브의 회장 조현우(동양어·이러언 08)군의 말이다.



▲동아리 ‘그림존’에서 기증한 그림이 바리스타 백승덕(경영·경영 10)군을 지켜보고 있다.

기부 문화 습관화를 위한 허브 더 카페의 걸음은 공정 무역 원두를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공정 무역은 커피 원산지인 제 3세계의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부자 기업의 무역 방식에 반대하는 무역이다. 공정 무역 방식을 이용해 원두를 가져오면 제 3세계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커피 원두를 가져오는 곳은 ‘세계 기아 대책’이라는 기구이다. 이곳에서 원두를 사면 지불한 금액의 절반 가까이 자동적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보내진다. 홍지애(경영·경영 09)양은 “여기에서 커피를 사먹는 학생들도 커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기부가 되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즐거운 기부를 할 수 있게 말이에요”라며 눈을 반짝였다.

“기업의 성공은 소비자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쁜 실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허브 더 카페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구입한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팔고, 여기에서 나온 순수의 전부를 다시 학교발전 기금 및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윤을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이유에 대해선 “기업가라면 항상 소비자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업이 잘되는 것은 기업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제품을 사준 소비자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매출의 많은 부분을 소비자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들과 이윤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허브 더 카페 학생들을 대표한 조현우군의 설명이다. 허브 더 카페의 경우 소비자가 우리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교에 수익을 기부하는 것이다.



▲“원두 한 톨도 새면 안돼요” 막내지만 팀장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김수현(동양어·몽골어 12)군이 원두 가는 기계를 세심하게 보고 있다.

이윤 없이 일하는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뭘까. 이곳에서 얻는 이점이 뭐냐는 질문에 허브 더 카페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대답했다. “창업에 대한 생생한 경험!” “우리 당장의 돈 몇 푼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건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한 기부 문화 습관화와 창업 경험입니다”라는 회장의 말에 이어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즐겁게 해요”라며 최재영(사회·자전 12)군이 말했다. 인터뷰 시작할 때 어색해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들 신난 얼굴이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커피색을 닮은 갈색 알차마를 두르고 얼음 가득 넣어 만들어준 그들의 커피는 평상시 먹어오던 커피의 맛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그들의 건강한 생각과 정직한 열정이 첨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진 건 없으나 패기가 흘러넘치는 이 젊은이들의 손맛을 보고 싶다면 국제학사 3층으로 찾아오라. 화살표가 당신을 반겨줄 것이다.

글 임채운 기자 86healing@hufs.ac.kr
사진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허브 더 카페』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위치 - 국제학사 3층 318호
- 커피 가격

아메리카노	1500원(HOT)	1800원(ICE)
바닐라 라떼	2500원(HOT)	2800원(ICE)



왼쪽부터 백승덕(경영·경영 10), 김수현(동양어·몽골어 12), 김연지(경영·경영 11), 홍지애(경영·경영 09), 최재영(사회·자전 12), 홍사성(상경·경제 08), 조현우(동양어·이러언 08)